

소아의 걱정증상 및 애착 양상과 소아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강성구 · 신진희 · 황유나 · 이은정 · 송상욱[†]

연구배경: 걱정은 불안장애의 핵심증상이지만 불안장애를 가진 소아뿐만 아니라 정상 소아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걱정증상과 가족 환경 요소, 특히 소아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애착 양상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 2곳에서 3, 4, 5, 6학년 학생 총 5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40명이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7.3%의 거부율을 보였다. 걱정증상, 애착양상 및 인지된 부모의 양육 태도는 각각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결과: 내적 일치도에 의한 걱정증상 설문(PSWQ-C; Cronbach's α 0.92) 및 소아에게 인지된 부모 양육태도 설문(Modified EMBU-C; Cronbach's α 0.64~0.89)의 신뢰도는 적절하였다. 약 22.4%의 소아가 비안정적인 애착(회피적 또는 양가적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남아 및 여아 모두에서 걱정증상 점수가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안적(anxious rearing)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자신을 양가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rejection)이라고 인식한 경우에는 자신을 회피적 혹은 양가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걱정증상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정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낀 경우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거부적 혹은 불안적 양육태도와 걱정증상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소아의 걱정증상은 소아에게 인지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애착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아가 발달하면서 가지게 되는 애착 양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정적으로 따뜻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불안장애의 핵심 증상인 걱정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중심 단어: 걱정, 애착 양상, 양육태도, PSWQ-C, modified EMBU-C

서 론

걱정은 소아 불안의 중요한 특징이다.¹⁾ DSM-IV에서는 걱정을 범불안장애의 핵심증상으로 설명하고 있고 분리 불안 장애나 사회공포증 같은 다른 불안 장애에서도 흔히 나타난다.^{2,3)}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전체 소아의 5~10%가 불안장애에 이환되며, 정상 소아 및 청소년에서도 불안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지난 몇 년간의 연구에서 걱정 증상은 불안장애를 가진 소아뿐만 아니라 정상 소아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2세 사이 초등학생의 약 80%가 매일 걱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학교, 건강, 죽음과 질병, 부모와 떨어지는 것 등에 대한 것이었다.⁴⁾ 이 중 약 6.7%의 소아가 범불안장애의 DSM-IV 진단 기준을 만족시킬 정도의 병적인 불안을 보였다.⁵⁾

소아에서 이러한 불안증상이 발현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가족 환경(애착관계, 양육태도 등)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⁶⁾ 부모와 소아간의 애착관계는 소아의 걱정과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⁷⁾ 부모와 소아의 관계가 소아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는데,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경우 소아는 자신의 기대에 반응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되지만,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경우 부모의 능력이나 도움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8,9)} 불안정한 애착은 크게 회피적 애착과 양가적 애착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된다.¹⁰⁾ 소아가 부모와 접촉하려 했을 때 자주 거절당하는 경우 회피적 애착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경우 소아는

접수일: 2007년 4월 22일, 승인일: 2008년 10월 8일

[†]교신저자: 송상욱

Tel: 031-249-7681, Fax: 031-248-7404

E-mail: sswkoj@unitel.co.kr

그러한 거절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일부러 부모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거나 강제적인 경향이 있는 경우, 소아는 양가적 애착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소아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불안과 분노 모두를 표현하게 된다.

회피적 애착이나 양가적 애착을 가진 소아들은 공포나 불안뿐만 아니라 행동장애나 사회격리 등 다른 정신 사회적 문제를 갖게 될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다.^{11,12)} 양가적 애착을 가지는 청소년의 경우 안정된 애착을 가진 경우보다 불안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또, 불안증상을 가진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자신이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13,14)}

부모의 양육 태도 또한 소아의 정신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양육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심각한 정신병리적 상태에 이를 수 있다.¹⁵⁾ 부모의 양육태도와 불안장애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에는 주로 성인 환자가 자신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했는지를 회상해서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 조사할 때, 소아가 양육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성인의 회상에 의한 연구에 대해 타당성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시도 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모와 소아와의 관계를 직접 관찰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 소아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지를 사용한 외국의 한 연구에서 부모의 불안한 양육태도나 거부적 양육태도와 소아의 불안 증상 발현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¹⁶⁾

Muris 등¹⁷⁾은 9~13세 사이의 초등학교 159명을 대상으로 가족 환경요인이 걱정증상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소아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애착관계와 불안장애의 핵심 증상인 걱정증상과의 관계에 대해 국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알아보고 외국의 연구들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 대상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 그리고 경기도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 각각 한 곳 등 2개 학교 3, 4, 5, 6학년 학생, 총 5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전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림장에 설문 조사에 대한 내용을 공지한 후 참여 의사를 물었다. 총 40명의 학생의 학부모가 설문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7.3%의 거부율을 보였고, 이를 제외한 509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선생님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 대상자들에게 검사 도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15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각 검사도구의 지시사항을 읽고 답하게 하였다. 대상자들은 자신의 교실에서 설문지 작성을 완료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게 질문 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도구

1)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Children (PSWQ-C): PSWQ-C는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로 소아들의 과도한, 일반적인,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¹⁸⁾ 원래 성인에서 사용하는 PSWQ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소아용에서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가끔 그렇다, 2점=자주 그렇다, 3점=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지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42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걱정을 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함을 의미한다.

설문의 번역 및 사용은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 번역 작업은 Guilleman 등¹⁹⁾과 Beaton 등²⁰⁾의 권장 지침에 최대한 맞추어 이루어졌다. 제1단계로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2명이 영어로 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 두 명 중 한명은 제1저자이고, 나머지 한 명은 본 설문의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 번역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단계로 4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두 개의 번역본의 차이를 토론하고 분석하여 완전한 한 개의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이 때 연구 대상이 아니면서 영어권 나라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8세에서 12세 사이의 3명의 소아들로 하여금 이 설문을 번역하게 한 뒤 완성된 번역본과 비교하여 연구대상 소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다. 제3단계인 역번역(back translation) 단계에서는 1단계 번역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두 명이 번역본을 영작하는 과정을 거쳤다. 역번역을 시행한 2명은 의료 계통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영어 및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설문의 취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 그

뒤 다시 4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역번역본에 대해 토론하고 분석하여 번역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였다.

번역본을 완성한 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모두 가르쳐 본 경험이 많은 교사로 하여금 이 연령대의 소아들이 번역본을 이해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2) 애착 양상(Attachment styles): 애착 양상에 대한 조사는 Hazan과 Shaver²¹⁾가 기술한 방법을 Muris 등¹⁷⁾이 소아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놓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다른 소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해당하는 문장을 고르는 방식이다. 즉, (1) ‘나는 다른 아이들과 쉽게 친한 친구가 된다. 나는 친구들을 믿고,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안하다. 나는 외톨이가 되거나 다른 아이가 나와 너무 가깝게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를 안정된 애착관계(secure attachment)로, (2) ‘나는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불편하다. 친구들을 완전히 믿고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아이들이 나와 가까운 친구가 되려고 하면 불안하다. 친구들은 자주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더 가까이 온다.’를 회피적 애착관계(avoidant attachment)로, (3) ‘나는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 아이들은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친구 사이를 끝내자고 할까 봐 자주 걱정한다.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싶지만 이런 희망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나를 떠날까 봐 걱정된다.’를 양가적 애착관계(ambivalent attachment)로 구분하였다. 소아들에게 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3)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My memories of upbringing (Modified EMBU-C): EMBU는 원래 성인이 자신의 부모 양육태도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 내어 평가하도록 개발되었다.²²⁾ 그러나 기억을 회상하면서 생기는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 Castro 등²³⁾이 소아용 EMBU를 개발하였고, 이를 다시 Muris 등²⁴⁾이 좀 더 구조적으로 현재 소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된 소아용 EMBU를 개발하였다. Modified version of EMBU-C는 총 40문항으로 부모 양육태도에 대해 정서적 따뜻함(emotional warmth), 거부(rejection), 과보호(overprotection), 불안적인 양육(anxious rearing) 이렇게 각각 10문항씩 4개의 하부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지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점수는 10문

항씩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부요인별로 각각 합산하게 된다. 모든 Modified version of EMBU-C 문항에 대해 소아들에게 먼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그 다음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애착 양상의 측정도구와 Modified version of EMBU-C의 각 문항의 번역은 제 1저자와 설문외의 취지를 알지 못하는 다른 가정의학과 및 내과 전문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뒤 4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각 번역본을 비교 검토한 후 최종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에는 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SPSS) version 12.0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애착양상과 PSWQ-C 및 Modified version of EMBU-C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과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고,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하였다. 그 외 Pearson 상관분석, t-test 등을 시행하였다. P<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남자는 271명, 여자는 238명이었으며, 평균나이는 10.4 (±1.2)세, 연령범위는 8~12세이고, 연령에 대한 소아의 분포는 8세 3.9%, 9세 23.0%, 10세 26.5%, 11세 23.6%, 12세 23.0%이었다. 학년 분포는 3학년 25.5%, 4학년 26.7%, 5학년 22.2%, 6학년 25.5%였다.

내적 일치도를 통해 설문의 신뢰도를 구하였을 때 EMBU-C의 Cronbach's α 값은 0.64 (overprotection of mother)부터 0.89 (emotional warmth of father, mother) 사이의 범위를 보이고 있었고, PSWQ-C의 Cronbach's α 값은 0.92였다. EMBU-C 각 영역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라고 느끼고 있었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감정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아가 자신의 애착 양상이 어떤지 기록하도록 한 조사에서는 361명(남: 73.5%, 여 82.4%)이 안정된 애착을, 33명(남: 8.0%, 여: 6.0%)이 회피적 애착을, 71명(남: 18.5%, 여: 11.6%)이 양가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애착 양상에 있어 남녀 아동의 차이가 있었는데, 주로 남아에서 여아에 비해 불안정한 애착(회피적 애착, 양가적 애착)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Table 1. General statistics of subjects and the number (percentage) of children who classified themselves as either securely, avoidantly, or ambivalently attached.

	Total	Boys	Girls	α †
PSWQ-C	13.2±8.3 (464)	13.0±8.0 (246)	13.5±8.6 (218)	0.92
EMBU-C father				
Anxious Rearing	20.8±5.7 (436)	20.8±5.9 (230)	20.9±5.4 (206)	0.80
Overprotection	21.5±4.6 (437)	21.8±4.7 (232)	21.2±4.4 (205)	0.66
Emotional Warmth*	30.7±6.8 (445)	29.7±6.8 (233)	31.7±6.6 (212)	0.89
Rejection*	15.2±4.2 (445)	15.6±4.4 (232)	14.7±3.9 (213)	0.72
EMBU-C mother				
Anxious Rearing	22.5±6.0 (431)	22.6±6.4 (228)	22.4±5.5 (203)	0.80
Overprotection	23.7±4.7 (437)	24.0±4.9 (232)	23.3±4.5 (205)	0.64
Emotional Warmth*	31.0±6.7 (444)	30.0±6.7 (233)	32.1±6.5 (211)	0.89
Rejection*	16.3±4.6 (441)	16.8±4.7 (231)	15.8±4.5 (210)	0.78
Attachment styles				
Secure	361 (76.6)	183 (73.5)	178 (82.4)	
Avoidant	33 (7.1)	20 (8.0)	13 (6.0)	
Ambivalent	71 (15.3)	46 (18.5)	25 (11.6)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N) except attachment styles. *P<0.05 by t-test, †Cronbach's α , PSWQ-C: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Children, EMBU-C: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My memories of upbringing for Children.

2. 소아의 걱정 증상 및 애착 양상

소아의 애착 양상에 따른 걱정 증상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안정된 애착을 가진 소아는 회피적 애착이나 양가적 애착을 가진 소아들에 비해 유의하게 걱정 증상 점수(PSWQ-C score)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회피적 애착을 가진 소아와 양가적 애착을 가진 소아에서는 걱정 증상 점수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에서는 회피적 애착을 가진 소아보다 양가적 애착을 가진 소아에서 유의하게 걱정 증상 점수가 더 높았다(P<0.05). 성별과 애착 양상간의 교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P=0.305)(표 2).

3. 소아에게 인지된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애착 양상과의 관계

소아의 애착 양상은 부모 모두의 불안적인 양육 태도, 감정적 따뜻함, 거부적 양육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소아가 자신의 부모가 불안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애착 양상은 양가적이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감정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낀 경우 안정적 애착 양상을 보였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가 거부적이라고 느낀 경우 애착 양상은 안정적이기 보다는 회피적 혹은 양가적이었다. 역으로 살펴보았을 때, 양가적 애착을

Table 2. Mean PSWQ-C scores of children who classified themselves as either securely, avoidantly, or ambivalently attached.

	Secure	Avoidant	Ambivalent
Total	11.3±6.8 (349)	17.7±9.8 (31)*	20.9±8.9 (68)*
Boys	10.9±6.7 (177)	15.6±8.9 (18)*	20.6±8.5 (43)*†
Girls	11.7±7.0 (172)	20.6±10.5 (13)*	21.2±9.8 (25)*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 *P<0.05 versus secure, †P<0.05 versus avoidant by Scheffe's post hoc test after one-way ANOVA, PSWQ-C: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Children.

가진 소아는 자신의 부모가 감정적으로 따뜻하지 못하고, 거부적이며, 불안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인지하고 있었다(표 3).

4. 걱정 증상과 인지된 양육 태도와의 관계

걱정 증상과 인지된 양육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불안적인 양육 태도, 과보호,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인지된 경우 걱정 증상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감정적으로 따뜻하다고 인지된 경우 걱정 증상

Table 3. Mean EMBU-C scores of children who classified themselves as either securely, avoidantly, or ambivalently attached.

	Secure	Avoidant	Ambivalent	P*
EMBU-C father				
Anxious rearing	20.5±5.7 (326)	20.2±5.6 (31)	22.6±5.3 (67)	0.019
Overprotection	21.5±4.6 (330)	21.3±4.9 (29)	22.2±4.3 (66)	0.460
Emotional warmth	31.9±6.0 (333)	26.1±8.1 (31)	27.5±7.4 (68)	<0.001
Rejection	14.5±3.8 (335)	17.9±5.5 (30)	17.2±4.6 (68)	<0.001
EMBU-C mother				
Anxious rearing	22.2±6.0 (325)	22.5±5.2 (29)	24.4±5.6 (65)	0.023
Overprotection	23.6±4.7 (329)	23.3±4.6 (30)	24.7±4.8 (66)	0.204
Emotional warmth	32.0±6.0 (333)	27.3±8.0 (29)	28.3±7.3 (68)	<0.001
Rejection	15.7±4.4 (332)	18.7±4.6 (29)	18.3±5.0 (67)	<0.001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 *P-value by ANOVA, EMBU-C: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My memories of upbringing for Children.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MBU-C and PSWQ-C.

	Correlation with PSWQ-C		
	Total	Boys	Girls
EMBU-C father			
Anxious rearing	0.244*	0.316*	0.167*
Overprotection	0.141*	0.184*	0.098
Emotional warmth	-0.316*	-0.344*	-0.301*
Rejection	0.364*	0.408*	0.321*
EMBU-C mother			
Anxious Rearing	0.309*	0.367*	0.244*
Overprotection	0.236*	0.231*	0.244*
Emotional Warmth	-0.281*	-0.249*	-0.327*
Rejection	0.378*	0.421*	0.335*

*P<0.05. PSWQ-C: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Children, EMBU-C: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My memories of upbringing for Children.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표 4).

고 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소아의 정신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에 초점을 맞춘 표준화된 측정도구는 거의 없었다. 처음에 개발된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My memories of upbringing (EMBU)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인이 자신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회상해서 평가하는 81문항으로 이루어진 측정 도구였다.²²⁾ 그러나 회상에 의한 측정시 생기기 되는 편견에 의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그 뒤 소아가 현재 자신의 부모의 양육 태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Castro 등²³⁾은 EMBU를 소아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문항을 41문항으로 단순화하여 EMBU-C를 개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감정적 따뜻함(emotional warmth), 거부(rejection), 과보호(overprotection), 호의적 대상(favoring subject) 등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Grüner 등²⁵⁾은 소아의 불안에 대한 연구와 좀 더 명확하게 관련이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포함시키려고 EMBU-C의 교정을 시도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아가 자신의 부모가 불안적인 양육 태도를 인지하는 것을 반영하는 문항을 넣는 것이었다. 또 모든 소아가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MBU-C의 문항들 중에서 이와 관련된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수정된 EMBU-C(modified EMBU-C)는 4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Muris 등²⁶⁾이 시행한 요인 분석에서 처음 의도한 것처럼 4개의 요인 즉, 정서적 따뜻함(emotional warmth), 거부(rejection), 과보호(overprotection), 불안적인 양육(anxious rearing) 요인 등이 각각 10문항씩 추출되었다. 또한 내적 일치도 및 검사-재검사법에 의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걱정은 불안장애의 핵심증상이지만 불안장애가 없는 정상인에서도 흔하게 관찰된다.^{4,5)} 그러나 걱정 증상 역시 소아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거의 없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eyer 등²⁸⁾은 펜실베이니아 걱정 증상 설문(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을 개발하였다. PSWQ는 16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PSWQ의 정신측정학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것은

로 나오자 이러한 좋은 특성을 소아와 청소년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Chorpita 등¹⁸⁾이 PSWQ를 이해하기 쉽고,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단순화시켜 소아용 펜실베이니아 걱정 증상 설문(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Children, PSWQ-C)을 개발하였다. PSWQ-C 역시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이번 연구에서는 정상 소아나 청소년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증상인 걱정증상이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 양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PSWQ-C와 Modified EMBU-C를 사용하여 알아보려 했다.

걱정 증상과 애착 양상간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스스로를 회피적 애착 혹은 양가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한 소아가 안정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한 소아에 비해 유의하게 걱정 증상 점수가 높았다. 이는 소아가 발달하면서 가지게 되는 애착 양상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불안장애의 핵심 증상인 걱정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자신을 안정적 애착이 아닌 양가적 혹은 회피적 애착 양상을 가진다고 분류한 소아의 비율이 약 22.5%였는데,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약 18%~20%정도 비율을 가진 것과 유사하였다.²⁶⁾

애착 양상과 인지된 부모의 양육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 모두에서 불안한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인지하는 경우 소아는 양가적인 애착 관계를 가졌고, 부모 모두에서 거부적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회피적 또는 양가적 애착을 가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선행 외국 연구에서 소아가 회피적 혹은 양가적 애착을 가진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안적이거나 거부적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²⁶⁾ 결국 부모의 양육 태도는 소아의 발달 과정에서 애착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소아의 걱정 증상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인지된 양육태도는 애착 양상과 유의한 관계는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정서적으로 따뜻한 양육태도를 가진다고 인지된 경우 소아는 안정적 애착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핵가족화 현상으로 자녀를 1~2명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형성된 애착의 강도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의 경우보다는 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걱정 증상과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불안적 또는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소아가 인지한 경우 걱정증상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역으로 정서적으로 따뜻한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소아가 인지한 경우에는 걱정증상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여아보다 남아에서 좀 더 두드러진 양상이었고, 어머니가 따뜻한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인지된 경우에서만 걱정 증상과의 음의 상관관계가 여아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났다. 남아에서 인지된 불안적 혹은 거부적 양육태도와 걱정 증상사이의 관계가 여아보다 좀 더 강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도 이전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소아의 걱정 증상과 좀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불안적 혹은 거부적이라고 소아가 인지한 경우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그러하다고 인지한 경우보다 남아나 여아 모두에서 걱정증상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또,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따뜻한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인지할 때,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따뜻한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인지할 때 걱정 증상은 좀 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소아의 걱정 증상 정도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대한 소아의 인지가 남아나 여아 모두에서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애착 양상에 대해 Hazan과 Shaver²¹⁾가 개발한 단문장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조사하였는데, Muris 등²⁶⁾은 9~12세 사이의 소아들은 회피적 혹은 양가적 애착 양상을 나타내는 것 같은 부정적인 문장 보다는 안정적 애착과 같은 긍정적인 문장에 기입하는 경향이 있어 불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소아가 적은 것으로 잘못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아의 애착 양상에 대한 조사 도구로서 이러한 단문장 도구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앞으로 좀 더 구조적으로 소아의 애착 양상을 판별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는 도구로서 Modified EMBU-C를 사용하였으나 아직은 한국어판 Modified EMBU-C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조사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설문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측정했을 때, Cronbach's α 값이 0.64에서 0.89까지로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한국어판 Modified EMBU-C의 검사-재검사법에 의한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소아의 걱정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PSWQ-C를 사용했는데, 이 역시 아직까지는 한국어판 PSWQ-C의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판 PSWQ-C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조사한 본 저자들의 다른 연구

에서 Cronbach's α 값이 0.90을, 3주일의 간격으로 조사한 검사-재검사법에 의한 상관계수는 0.83 ($P < 0.01$)을 보여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The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의 하위 유형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 걱정/과민요인과의 상관관계가 다른 하위유형과의 상관관계를 초과하였고 ($P < 0.01$), 허구척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만족스러운 타당도를 보이고 있었다(미발간결과, unpublished observation). 이번 연구에서도 한국어판 PSWQ-C의 Cronbach's α 값은 0.92로 충분히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제한점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결과는 소아의 걱정증상은 인지된 부모의 양육태도, 애착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임상가가 걱정증상이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소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때 가족 환경 요소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에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임상군에서의 연구 및 인지된 양육 태도, 애착 양상과 우울간의 관계, Modified EMBU-C의 요인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S

Relations between Worry, Attachment Styles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in Primary School Children

Sung-Goo Kang, M.D., Jin-Hee Shin, M.D., Yu-Na Hwang, M.D., Eun-Jeong Lee, M.D., Sang-Wook Song, M.D., Ph.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Worry, a core feature of anxiety disorder, is shown in not only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 but also normal childre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ry and family environment factors, especially, perceived parental rearing and attachment styles among children.

Methods: Five hundred and nine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mong 549 children in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 in two prim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Seongnam from October 2007 to December 2007. Forty children did not agree with participation (rejection rate: 7.3%). Their degrees of worry, attachment styles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were investigated with questionnaires.

Results: The reliability of a questionnaire asking children's worry, PSWQ-C and a questionnaire asking perceived parental rearing, modified EMBU-C was appropriate with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 of PSWQ-C: 0.92, Cronbach's α of modified EMBU-C: 0.68~0.89). Around 22.4% of children had insecure attachment (avoidant or ambivalent attachment) and scores of worry were high in both girls and boys. When children perceived their parental rearing behavior as anxious rearing, they were classified to have ambivalent attachment in many cases by themselves. And when they perceived the rearing as rejection many of them were classified to have avoidant or ambivalent attachment by themselves. Worry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in the cases where children answered their perceived parental rearing as emotional warmth and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rejective and anxious rearing.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children's worry was closely related with their perceived parental rearing and attachment styles. If the children's attachment, which has been developed while they have grown up, was insecure and they did not perceive parental rearing as emotional warmth, the intensity of worry, a core symptom of anxiety disorder, increased. (J Korean Acad Fam Med 2008;29:854-866)

Key words: worry, attachment style, perceived parental rearing, PSWQ-C, modified EMBU-C

참 고 문 헌

1. Perrin S, Last CG. Worrying thoughts in children referred for anxiety disorder. *J Clin Child Psychol* 1997;26(2):181-9.
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3. Weems CF, Silverman WK, La Greca AM. What do youth referred for anxiety problems worry about? Worry and its relation to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Abnorm Child Psychol* 2000;28(1):63-72.
4. Muris P, Merckelbach H, Gadet B, Moulart V. Fears, worries, and scary dreams in 4-12 year-old children: their content, developmental pattern, and origins. *J Psychol* 2000;29(1):43-52.

5. Muris P, Meesters C, Merckelbach H, Sermon A, Zwakhalen S. Worry in normal children.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8;37(7):703-10.
6. Rapee RM.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 Psychol Rev* 1997;17(1):47-67.
7. Cassidy J.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 Soc Res Child Dev* 1994;59(2-3): 228-49.
8. Cassidy J, Berlin LJ.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 1994;65(4): 971-91.
9. Thompson RA. Early attachment and later development. In: Cassidy J & Shaver P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1999. pp. 265-86.
10. Ainsworth MS, Blehar MC, Waters E, Wall S.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Oxford, England: Lawrence Erlbaum;1978.
11. Kirsh SJ, Cassidy J. Preschoolers' attention to and memory for attachment-relevant information. *Child Dev* 1997;68(6):1143-53.
12. Rubin KH, Mills RS L. Conceptualiz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Can J Behav Sci* 1991;23(3):300-17.
13. Warren SL, Huston L, Egeland B, Sroufe LA. Chil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and early attachment.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7;36(5):637-44.
14. Myhr G, Sookman D, Pinard G. Attachment security and parental bonding in adul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comparison with depressed out-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Acta Psychiatr Scand* 2004;109(6):447-56.
15. Perris C. Linking the experience of dysfunctional parental rearing with manifest psychopathology: a theoretical framework. In: Perris C, Arrindell WA, & Eisemann M (Eds.),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Chichester: John Wiley & Sons;1994.
16. Muris P, Merckelbach H.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ur and anxiety disorders symptoms in normal children. *Personal Individ Diff* 1998;25(6):1199-206.
17. Muris P, Meesters C, Merckelbach H, Hülßenbeck P. Worry in children is related to perceived parental rearing and attachment. *Behav Res Ther* 2000;38(5):487-97.
18. Chorpita BF, Tracey SA, Brown TA, Collica TJ, Barlow DH. Assessment of worr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n adapt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 Res Ther* 1997;35(6):569-81.
19. Guillemin F, Bombardier C, Beaton D. Cross-cultural adaptation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s: literature review and proposed guidelines. *J Clin Epidemiol* 1993; 46(12):1417-32.
20. Beaton DE, Bombardier C, Guillemin F, Ferraz MB. Guidelines for the process of cross-cultural adaptation of self-report measures. *Spine* 2000;25(24):3186-91.
21. Hazan C, Shaver P.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 Pers Soc Psychol* 1987;52(3):511-24.
22. Perris C, Jacobsson L, Lindström H, von Knorring L, Perris H. Development of a new inventory for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ur. *Acta Psychiatr Scand* 1980;61(4):265-74.
23. Castro J, Toro J, Van der Ende J, Arrindell WA.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assessing parental rearing styles in Spanish children with the EMBU. *Int J Soc Psychiatry* 1993;39(1): 47-57.
24. Muris P, Bosma H, Meesters C, Schouten E.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study of the Dutch EMBU for children. *Personal Individ Diff* 1998;24:439-42.
25. Grüner K, Muris P, Merckelbach H.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rearing behaviours and anxiety disorders symptomatology in normal children. *J Behav Ther Exp Psychiatry* 1999;30(1):27-35.
26. Muris P, Meesters C, Merckelbach H, Hülßenbeck P. Worry in children is related to perceived parental rearing and attachment. *Behav Res Ther* 2000;38(5):487-97.
27. Muris P, Meesters C, van Brakel A. Assessment of anxious rearing behaviors with a modified version of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questionnaire for children. *J Psychopathol Behav Assess* 2003;25(4):229-37.
28. Meyer TJ, Miller ML, Metzger RL, Borkovec T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 Res Ther* 1990;28(6):487-95.
29. Brown TA, Antony MM, Barlow DH.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in a clinical anxiety disorders sample. *Behav Res Ther* 1992;30(1):33-7.
30. Brown AM, Whiteside SP. Relations among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ttachment style, and worry in anxious children. *J Anxiety Disord* 2008;22(2):263-72.

부 록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for Children (PSWQ-C)

♣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평소의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걱정 때문에 정말 괴롭다.				
2.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3. 많은 일들이 나를 걱정하게 만든다.				
4. 나는 걱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5.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걱정을 많이 한다.				
6. 나는 항상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있다.				
7. 나는 마음만 먹으면, 걱정하던 것을 쉽게 멈출 수 있다.				
8. 나는 한 가지 일을 마치면 또 다른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기 시작한다.				
9.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0. 나는 지금까지 걱정이 많은 아이였다.				
11.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전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 나는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13. 나는 항상 걱정하고 지낸다.				
14. 나는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 일에 대해 계속 걱정한다.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My memories of upbringing (Modified EMBU-C)**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이것은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 평소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 ●표시를 해 주세요.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1. 나는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만 한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2.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신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3. 우리 부모님은 내 비밀을 자신들에게 다 말해주기를 원하신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4. 우리 부모님은 집에서 하는 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5. 우리 부모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신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6. 우리 부모님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신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7. 우리 부모님은 나와 잘 놀아 주시고, 내 취미에 관심을 가져주신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8. 우리 부모님은 나를 공정하지 않게 대하신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0. 우리 부모님은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1.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닮기를 바라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2. 우리 부모님은 내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부모님이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4. 우리 부모님은 뭐가 잘못되면 항상 나를 나무라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5. 우리 부모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혼내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6.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7. 우리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8. 우리 부모님은 내가 위험한 일을 할까봐 걱정하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19.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0. 우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혼내신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신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2.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실수할까봐 걱정하신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3.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주시지 않아서, 나는 실망스럽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4.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5.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규칙에 맞게 예의바르게 행동하는지 관심을 가지신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6. 내 방식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우리 부모님은 불안해하신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7. 우리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좋아한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8. 우리 부모님은 인색하셔서 나에게 뭘 해주시는 것을 아까워 하신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9. 우리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셔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만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30. 내가 어떤 어리석은 일을 했어도, 나는 우리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다.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아버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어머니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31. 우리 부모님은 나를 매우 주의 깊게 보살피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 ○ ○ ○
 어머니 ○ ○ ○ ○
32.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을 부모님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 ○ ○ ○
 어머니 ○ ○ ○ ○
33. 우리 부모님은 나를 칭찬해 주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 ○ ○ ○
 어머니 ○ ○ ○ ○
34.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나무라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 ○ ○ ○
 어머니 ○ ○ ○ ○
35.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 ○ ○ ○
 어머니 ○ ○ ○ ○
36.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 ○ ○ ○
 어머니 ○ ○ ○ ○
37.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모를 때 걱정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 ○ ○ ○
 어머니 ○ ○ ○ ○
38. 우리 부모님은 나를 항상 감시 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 ○ ○ ○
 어머니 ○ ○ ○ ○
39. 우리 부모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체벌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 ○ ○ ○
 어머니 ○ ○ ○ ○
40. 우리 부모님은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아버지 ○ ○ ○ ○
 어머니 ○ ○ ○ ○